

# 국산 편집 S/W 이젠 세계로!

IBM 과 Mac으로 양분돼 다양한 작업 환경으로 진화하고 있는 편집 프로그램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올 5월 Mac OS X 10.3V인 'Tiger' 가 출시됐고 애플이 공급하고 있는 본체 모니터 합체형 컴퓨터인 G5도 점차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서비스 공급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고 QuarkXPress 등 외산 제품과 견주었을 때 손색이 없는 국산 편집, 조판 프로그램으로 승부하는 업체가 있다. 폭넓은 구독자를 바탕으로 다국적 전달 매체로 인정받고 있는 Metro 신문 제작에 프로세싱 공급 계약을 완료한 (주)소프트매직(대표 김민수)이다. 이 회사는 현재 PIN(Publishing Information Network) Academy를 통해 체계적인 편집, 조판 프로그램 공급을 목표로 Webtop Publishing Center를 개설, 온라인 인쇄·출판의 과정을 선보이고 있다.

## 편집 조판 부문의 혁명

1987년 12월, (주)신명시스템즈라는 상호로 출발한 이 업체는

매킨토시 기반의 전자 출판 시스템을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한다. 바로 1980년대 중반 미국과 유럽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구가하고 있었던 매킨토시다.

이 프로그램은 편집, 조판 프로그램의 혁명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니며 디자이너 등 실무자들로부터 큰 호평을 이끌어냈다. DOS 상에서의 입력 방식이 아닌 진입 경로에서 손쉬운 파일 지정을 통해 OS 환경을 간편하게 조정해 줬기 때문이다.

획기적인 프로그램의 등장으로 인한 시장의 판도를 감지하고 전자 출판 시장에 뛰어든 이 업체의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1988년, 지방 유력 일간지인 무등일보에서 조판 시스템의 변화를 위해 매킨토시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바로 신개념의 워크플로가 국내 시장에도 정착을 시도한 것이었다. 하지만 한글 작업 환경에서의 호환성이 가장 큰 키워드로 다가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서체 개발에 주력하며 'SM' 폰트를 개발하게 된다. 가장 큰 관건이 바로 PS 환경에서 얼마나 발 빠른 적응을 보일 수 있느냐라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

1. 애플 소프트매직 제휴 2. 아카데미



으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QuarkXPress의 한글화에 성공하게 된다. 개발과 함께 마케팅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1991년 당시 편집, 디자인, 출력 부문의 메카로 통하던 충무로에 '신명 그래픽 센터'를 개설한다. 우수한 기술이 가미된 프로그램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초 기지가 우선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이다.

1992년 (주)신명컴퓨터로 상호를 바꾼 이 업체는 이듬해인 1993년, 한글 서체인 '계유자'를 개발하고 전자 조판 시스템의 토털화를 선언한다. 단지 외산 프로그램을 공급하기 보다는 국내 환경에 맞는 소프트웨어 개발의 필요성을 실감했기 때문이다. 시기적인 호황도 이 같은 변화에 날개를 달아줬다.

애플사가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던 컴퓨터 시장에 NEXT사가 시장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매킨토시 작업 환경에 맞는 컴퓨터(NEXTSTEP) 보급을 시작한다. 또 충무로 등에서의 편집, 조판 실무자들이 점차 매킨토시의 이점을 느껴 구입량이 증가하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점은 남아 있었다. 이를 적절하게 연동시킬 수 있는 한글 OS의 개발이었다.

#### 새로운 OS 환경

1995년, 개발·소비자의 입장이 동시에 고려된 NESTSTEP과 폰트 개발, 매킨토시의 보급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면서 이 업체는 (주)소프트매직으로 사명을 변경한다. 또 신문 편집프로그램인 'Newsman'을 개발해 언론사를 대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실시하게 된다. 한글 서체는 더욱 강화된 모습으로 시장에 출시된다. SM 서체를 개발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1997년, PS기반의 갑술·정축 폰트를 발표한다.

매킨토시에 대한 세계 시장의 흐름을 꿰뚫다 보니 워크플로에

대한 변화를 시도했고 이 환경에 맞는 컴퓨터의 보급이 안정권에 진입하면서 주변 소프트웨어의 완벽한 지원이 관건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흐름은 당시 벤처 기업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가 무르익었던 1998년에 성과를 보이기 시작한다. 신기술 개발 부문의 벤처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영어권 시장으로의 진출을 선언한다. 신문 제작시스템인 Newsman으로 끊임없이 수출의 문을 두드렸다. 이를 통해 편집, 조판 프로그램의 호환성은 바로 다국어 시스템 구축에 있다는 원초적인 답변을 이끌어내게 된다.

2001년, 프로그램 공급의 기초적인 환경을 지원했던 Mac OS 9 운영 체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거쳐 OS X으로 변모하게 된다. 액면 상에 나타난 매출 급성장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지만 이렇게 급변하는 환경을 직감한 이 업체는 Project M을 발표하며 종합 출판시스템으로 거듭나기 위한 재도약을 선언한다. 또 지금까지 연구 개발에 매진해 오던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동 편집 배열표 및 터잡기 프로그램인 'BookAssembler'를 개발, 보급에 나선다. 앨범 자동 편집 프로그램(ProjectY)도 시장에 새롭게 선보인다. 이렇게 다각적인 모습을 단계별로 선보이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던 이 업체는 주력 편집, 조판 프로그램인 M-Layout이라는 블루칩을 시장에 공개한다.

2003년 10월, Metro 신문사는 M-Layout을 자체 편집 소프트웨어로 채택한다. 시험 기간과 가용성에 대한 점검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신문에 납품의 물꼬를 튼 것이다. 선택한 이유는 간단했다. 다국어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 전 세계적으로 폭넓은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Metro 신문사가 새로운 환경 작업을 채택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

한.마.디. | 김민수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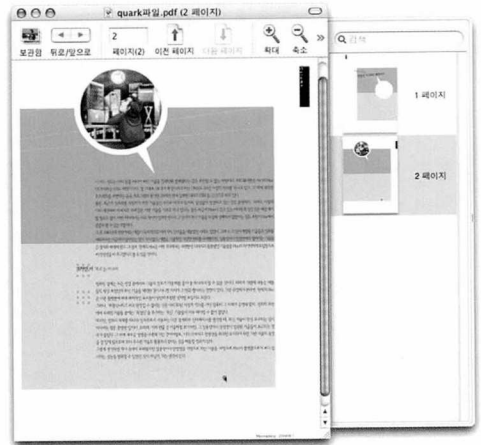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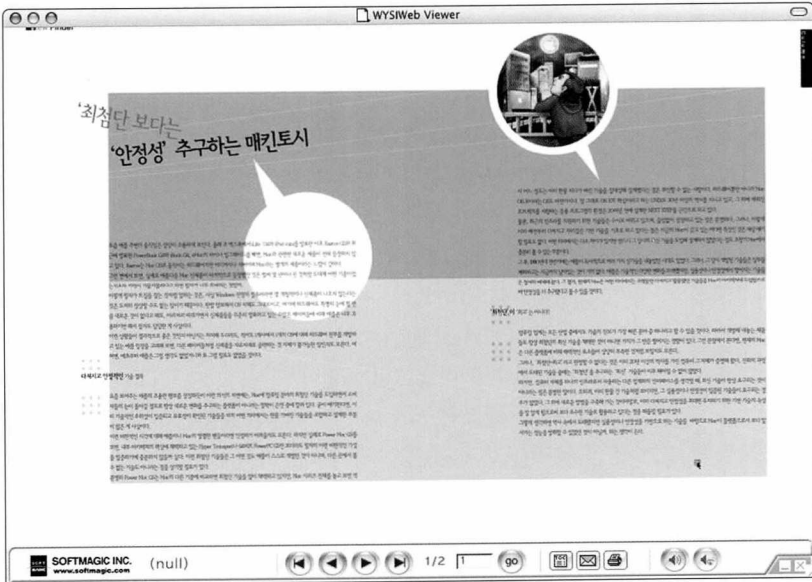
## “최상의 편집프로그램으로 저변 확대할 것”

“편집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전 세계 어떤 나라에 공급해도 손색이 없는 제품을 선보이겠습니다.”

김민수(46) (주)소프트매직 사장은 전자출판 분야에서 지난 18년 동안 편집, 조판 프로그램을 개발해 온 소감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또 “지금까지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은 외산 제품이 주류를 이뤘지만 우리도 수출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덧붙였다. 전 세계적으로 e-Book 시장은 3조원에 육박한다. 주력 소프트웨어로 공급하고 있는 M-

Layout도 이젠 세계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 정점에 그가 서 있다. 향후 계획은 POD(Printing On Demand) 시장을 겨냥한 전략과 전술을 수립하는 것. 이에 대해 그는 “PIN을 최대한 활용하며 저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우리가 공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각 나라에서도 완벽한 호환이 이뤄질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매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강원도 양구가 고향인 그는 지난 1974년 미국으로 이주했으며 1982년 MIT 공대를 졸업했다.





지난해 4월, 이 업체는 온라인 출판 프로그램인 'PageServer'를 개발했다. 또 국산 편집, 조판 프로그램의 마케팅 강화를 위한 전초기지도 점차 늘려 미국 산호세에 온라인 대리점을 개설했다. 일본과 e-Book부문에 대한 대리점 계약도 완료했다.

**"이제는 수출이다"**

M-Layout은 온라인 자동 편집 및 전자책의 자동 생성이 가능하다. 문자 코드별로 다양한 스타일의 제작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직접 코드 영역을 지정할 수 있다. 별색 활용은 기본이다. 표짜기 네비게이션이 한층 더 강화됐으며 선, 문자, 박스에 직접 컬러를 지정할 수 있다. 현재 2.1 버전까지 출시했으며 가격은 50만원대로 저가 보급형이다.

가장 큰 특징은 명함부터 카탈로그 등의 상업 인쇄물을 자체 제작할 수 있다는 것. 복합기를 비롯해 150만원대의 하드·소프트웨어 장비만 있어도 가능하다. 이제는 다양한 루트의 출력 환경이 구축돼 있지 않아도 기획 등 편집 실무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또 다른 나라에서도 바로 인쇄할 수 있는 다국어 시스템이 지원된다. 이러한 작업 환경을 바탕으로 올 상반기 프랑스 Trias사와 세계적인 대중 매체의 하나인 Metro 신문의 제작에 대한 계약을 완료했다. 계약의 주 골자는 편집, 조판 부문의 프로세싱 전반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위치를 고수하고 있는 QuarkXPress의 기술력을 뛰어넘었다는 얘기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 세계 18개국 81개 도시에서 M-Layout을 이용한 신문 제작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 7월을 기점으로 이 업체는 스페인어 120카피를 수입하고 프랑스 등 유럽권역의 언어를 순차적으로 도입했다.

다국어 언어를 공급하기 위한 작업 환경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에 대한 발판은 내수 시장이 먼저 제공했다. 현재 다락원, 한국광양사 등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전자·인쇄 책자

를 동시에 발행했으며 레이아웃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있는 업체도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러한 성과는 한 순간에 얻어진 결과가 아니었다. 1989년, 동아출판사에 매킨토시 300여대를 납품하고 전자 출판 시스템의 구현을 한 단계 앞당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당시 최대 규모의 온라인화 작업이었다. 또 민주·제주·영남일보사 등에 프로그램과 장비를 납품하며 새로운 조판 환경의 구축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 1996년 서울시스템과 OEM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인트라넷 작업 환경에 맞는 레이아웃 공급에 주력한 바 있다. 결국 이러한 편집, 조판 프로그램의 수출 성과는 단계적인 기술 노하우의 전파와 보급, 시기적인 호황이 없이는 불가능했다. (장흥일 기자)